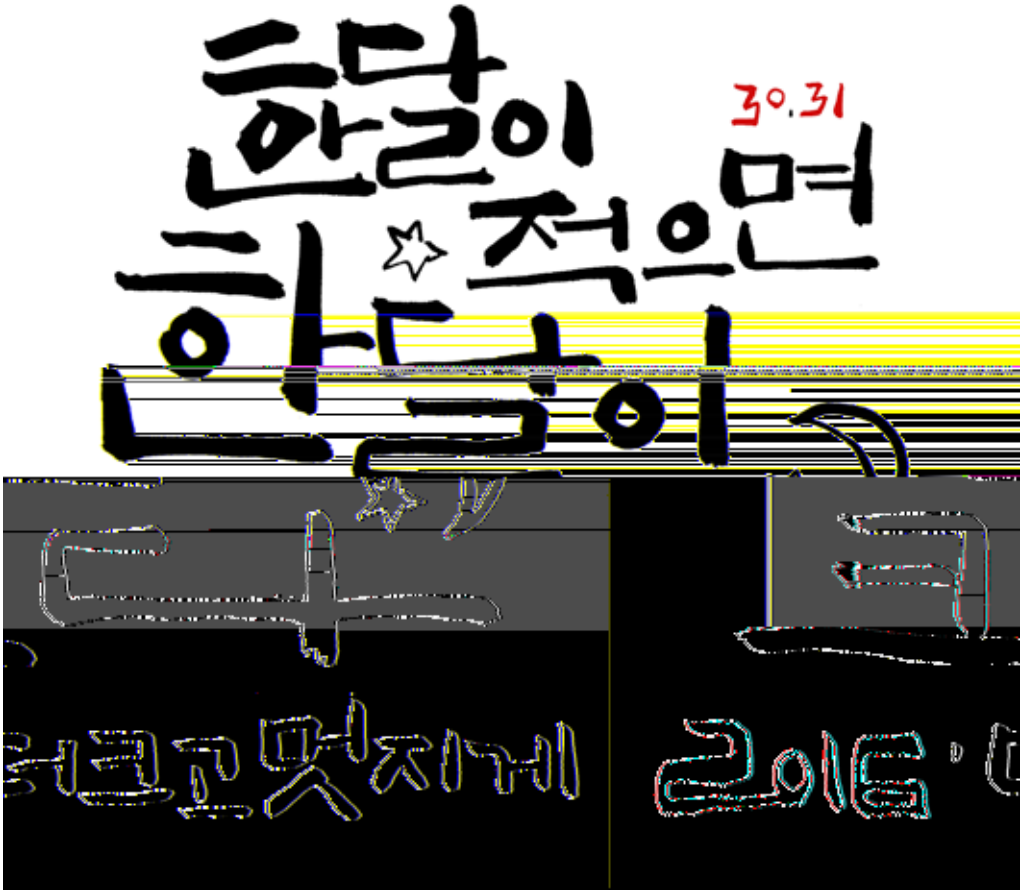
2015년이 언제 지나갔는지
모르게 벌써 12월입니다.
가만 생각해보니
우리는 매달 한 달은 적고
한 달은 크고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.
30일, 31일, 매달 크고 적은
한 달 한 달을 살고 있듯이,
2016년 새해는 더 크고
멋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.

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